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7월 10일(주일) 제1107호



전하고, 가르치고, 고치고

해외 30개국 167팀 2,238명, 국내 85개 지역 150팀, 3,137명
차세대 여름캠프 '예수님이야기' 51일 동안의 대장정 시작

온누리교회의 여름은 작열하는 태양보다 뜨겁다. 여름 아웃리치와 차세대 캠프 때문이다.

올해 온누리교회는 해외 167팀 2,238명이 30개국 107개 지역, 국내 150팀 3,137명이 85개 지역으로 아웃리치를 가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고칠 예정이다.

해외 아웃리치는 남아시아가 91팀으로 가장

많고, 동북아시아 47팀, 유라시아 10팀, 중앙아시아 7팀, 북미 6팀, 아프리카 5팀, 중동 1팀 순이다.

국내 아웃리치는 경기도 25개 지역, 강원도 21개 지역, 충청도 18개 지역, 전라도 13개 지역 등 총 85개 지역으로 흩어진다(7월 7일 기준).

주요 사역은 예배 섬김, 다문화가정사역, 지

역전도, 노숙인사역, 어린이캠프, 마을잔치, 해비타트(집짓기)사역, 군교회 방문, 교회 시설 보수, 일손 돕기 등 지역사회와 지역교회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실시할 예정이다.

차세대 여름캠프도 시작됐다. 지난달 25일 양지 온누리교회 예움이 포문을 연 차세대 여름캠프는 8월 14일 대전 꿈방, 평택 파워웨이브, 양지 파워웨이브까지 장장 51일 동안 이어진다.

올해 차세대 캠프는 '예수님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된다. 선한 사마리아인, 삭개오, 중풍병

자를 데려온 친구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르치고, 고치고, 복음을 전한 예수님에 대해 강조할 예정이다.

한편 본지에서는 여름 아웃리치 후기와 간증, 사진을 공모하고 있다. 성인공동체, 대학청년부, 사역팀 등의 아웃리치 후기와 간증, 현장 사진, 글쓴이 사진을 매주 수요일 오후 3시까지 이메일(onnuriweekly@gmail.com)로 보내 주면 소정의 상품을 준다. 원고는 A4용지 1장.

문의: 02-3215-3196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오늘은 '대중교통 타고 교회 오는 날'

이웃과 지역사회에 예수님 바로 보여주는 캠페인

오늘(10일)은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성도들이 대중교통을 타고 교회에 오는 날이다. 교회 주차장 이용이 제한된다. 서빙고는 주차증을 발급받은 장애인, 7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36개월 이하 자녀동반, 10살 미만 자녀가 3명인 경우에만 교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교회 주변에도 주차해서는 안 된다.

양재는 주차증을 발급받은 장애인, 노약자, 환자, 임산부, 유아동반 차량만 교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외부 주차장(양재 환승, 구립,

시민의 숲)도 이용할 수 없다. 택시를 타고 올 경우에는 강남대로나 일동제약 앞에서 하차해 도보로 교회에 와야 한다. 양재역에서 교회로 오는 셔틀은 운행된다.

사회선교본부장 이기훈 목사는 "성도들에게 주민들을 배려하고, 환경을 생각하는 선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02-3215-3266, 3434, 3436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양지 온누리교회 오늘 창립 4주년

오전 9시 감사예배, 오후 2시 손기철 장로 치유집회

양지 온누리교회가 창립 4주년을 맞아 오늘 오전 9시 김사무엘홀에서 '창립4주년 감사예배'를 드린다.

오후 2시에는 손기철 장로 초청 'Heavenly Touch 치유집회'가 열린다. 7월 24일에는 20여 명의 클래식 음악 전문가들로 구성된 'Life Rord Singers' 특별초청 찬양콘서트가 막 오른다.

지난 7월 8일부터는 금요성령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8월 19일(금)까지 이어진다. 집회 인도는 도육한 목사(7월 15일, 8월 19일), 박종길 목사(7월 22일), 이상준 목사(7월 29일), 이기훈 목사(8월 5일), 김성진 장로(8월 12일)가 한다. 숙소(비용 개인 부담)도 마련되어 있다.

문의: 031-331-8171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 이번 주(10일) 신문은 7월 4~6일 진행된 간사수련회 관계로 8면을 제작했습니다.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 또 있을까.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의 목소리에는 힘이 넘쳤고, 눈빛은 귀하디귀한 보석보다 빛났다. 하나님과 바이올린을 이야기하는 그녀는 마치 천국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지금껏 살아온 힘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고, 바이올린은 사명”이라고 했다. 그런 그녀가 하나님과 바이올린을 결합시킨 인생의 제 2막을 시작했다.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멋진세상 봉사대사로 활약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를 만났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하나님과 바이올린...”

NGO 더멋진세상 봉사대사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정경화는 한국은 물론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바이올리니스트다. 4남 3녀 중 셋째 딸로 태어난 그녀는 네 살 때부터 다른 형제들과 함께 피아노를 배웠다. 6.25 한국전쟁 당시 그 정신없는 피란길에 오르면서도 피아노를 신고 갔다. 정경화의 실력은 일찍이 국내를 넘어섰다. 열세 살에 미국 줄리아드 음악원에 전액 장학생을 받고 입학했다. 그녀는 부모의 지원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 콩쿠르에 참가했다. 우승을 꿈꿨지만 세계무대가 주는 부담감이 너무 컸다.

“너무 자신이 없고 떨리더라고요. 피나도록 연습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아마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한 시간 같아요(웃음).”

1967년 미국의 레벤트리트 콩쿠르에서 핀커스 주커만과 공동우승 했다. 그때부터 세계 음악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1970년 차이콥스키 협주곡을 연주하면서 영국 런던에서 데뷔했다. 데뷔하자마자 스타덤에 올랐다. 일년에 100회가 넘는 연주회에 참가했다. 수많은 연주회를 참여하면서 바이올린이 즐거움이 아니라 힘든 일이 되어버렸다.

“런던에서 데뷔하고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바이올린을 그만두고 싶다고 어머니께 울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제 막 세계무대를 향해 날갯짓을 할 무렵이었다. 힘든 유학생살을 뒷바라지 하던 어머니가 크게 실망할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런데 어머니는 뜻밖의 말을 건넸다.

“네가 힘들다면 바이올린 그만두자. 너를 위해 바이올린을 해야지 바이올린을 위해 바이올린을 해서는 안 된다.”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큰 위로를 받았다. 그 뒤로는 오로지 바이올린만 보고 살 수 있었다. 힘든 시절 그녀를 견디게 해준 또 다른 힘은 신앙이었다. 그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 모태신앙이다. 열세 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때 목사님이 해주신 기도가 아직도 기억난다고 했다. 1984년 결혼한 그녀는 1989년에 음악인, 아내, 엄마로서의 역할을 하느라 힘든 시기를 보냈다. 그 힘든 시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

“삶이 정말 힘들 때 참석했던 부흥회에서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때 처음으로 방언을 받았어요.”

손가락 부상, 다시 무대에 서기까지

승승장구하던 그녀에게 2005년 위기가 찾아왔다. 왼손 검지에 부상을 입은 것. 바이올린



온누리 NGO '더멋진세상'에서 봉사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정경화.

연주자에게 손가락 부상은 치명적이었다. 앞으로 연주를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당시 그녀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했다.

“손가락 부상을 당했을 때가 제 나이 57살이었어요.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기도했어요.”

바이올리니스트로서는 은퇴하고 모교 줄리아드 음악원 교수로 청빙되어 후학을 양성했다. 손가락 부상을 당하고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되었다. 2010년 지휘자 아쉬케나지가 이끄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브람스 협주곡을 연주하면서 복귀를 준비했다. 2011년부터 ‘대관령국제음악제’ 무대에도 올랐다. 2013년에는 아시아 15개 도시 순회연주를, 그리고 2014년에는 퍼스, 리버풀에

이어 런던 로열페스티벌홀 3천석을 매진시키며 뜨겁게 복귀했다. 그렇게 5년 만에 다시 본격적인 바이올린 연주자로서의 길이 기척처럼 열렸다.

“결국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은 바이올린이더라고요. 지금 칠순을 바라보고 있지만 아직도 무대에서 연주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행복하거든요.”

NGO 더멋진세상의 봉사대사

그녀는 활발한 음악활동 외에도 온누리교회 소속 NGO ‘더멋진세상’의 봉사대사로도 활약하고 있다. 그녀는 97년부터 아프리카 르완다의 아이들을 후원하고 있다. 후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르완다에 직접 가보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 기회가 왔다. 2010년

온누리교회 봉사콘서트에 참여했는데 그 자리에서 NGO 더멋진세상이 아프리카 르완다를 돕고 있다는 이야기 듣고 2013년부터 NGO 더멋진세상이 봉사대사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홍보대사 제의를 많이 받았지만 자기까지 나서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거절했었다. 그런데 NGO 더멋진세상의 봉사대사 제의를 듣고는 흔쾌히 수락했다. 예전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나눌 수 있을지를 고민해왔었기 때문이다. 그녀의 어머니가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강조한 것도 마음을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었다. 지난 2014년에는 NGO 더멋진세상과 함께 아프리카 르완다로 아웃리치를 다녀오기도 했다. 그간 후원해왔던 아이 세 명과 이야기를 나누고, 주민들도 만났다. 모기장을 치는 봉사활동에도 참여했다. 수도문제 해결과 자력경제활동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훗날 NGO 더멋진세상에 후원금을 보태기도 했다.

“NGO 더멋진세상에서 작년에 조산소를 세워 산모들이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뿔 듯이 기뻐했어요.”

NGO 더멋진세상은 르완다에서 미취학 아동들을 위한 교육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그녀는 “아이들이 소중한 꿈을 꾸고 자라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지원해 주신다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지난 4월에 있었던 정기후원 약정행사에서 연주자로 참여할 만큼 NGO 더멋진세상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NGO 더멋진세상에 새로운 후원자 2,800여 명이 추가 되어 전체 후원자 수가 9,5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후원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최근 그녀의 활동을 보면 세월을 거스르는 것 같다.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3곡과 파르티타 3곡을 녹음했다. 15년 만에 발표하는 정규앨범이다. 바흐의 무반주 6곡은 ‘바이올린의 구약성서’로 불리는 작품이다. 바흐 음악의 정수라고 평가되는 만큼 연주의 난이도가 높다. 이십대 초반에 2곡을 녹음한 경험이었다.

“그때 녹음을 하고 나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하고 녹음하자고 마음먹었는데 그것이 40년이 지났네요.”

지나온 세월은 그녀의 연주 실력을 더욱 성숙시켰다. 이번 녹음을 도전할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다. 이외에도 런던 바비칸센터, 서울 예술의전당, 상하이 심포니홀 등 순회연주도 계획되어 있다. 2017년에는 카네기홀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 그녀는 활발한 연주활동을 멈추지 않는다.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길어질 것이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사도행전 29장

사도행전 28:23~31

“사람은 막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술가들에게는 ‘미완성의 미학’이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작품을 끝내지 않음으로써 예술적인 가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음악가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없이 중간에 끝나서 미완성 교향곡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슈베르트가 25세에 작곡했는데 그로부터 6년 뒤에 죽었습니다. 6년 동안 완성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교향곡을 완성하지 않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미완성으로 끝났기에 더 위대한 음악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각가 미켈란젤로도 많은 작품들을 미완성으로 남겼습니다. 의도적으로 작품을 미완성으로 남김으로써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미완성의 아름다움을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이르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출발해서 배를 타고 로마에 이르는 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풍랑에 죽을 뻔도 했습니다.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몰타 섬에 머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로마에서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마지막 모습은 그렇게 다이나믹하지 않습니다. 매우 정적이고, 차분하고, 수동적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미완성의 아름다움과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에는 오순절 예루살렘에 성령이 강림해서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같은 드라마적인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을 당한 상태에서 찾아오는 이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모습으로 끝납니다. 무엇인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끝납니다.

“바울은 만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신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을 맞이하여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습니다”(30~31절).

사도 바울이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찾아온 이들과 조용히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사역이 로마제국을 뒤흔드는 역사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바울의 위인전이 아닙니다. 바울에 대한 기록을 하는 책이었다면 바울이 어떻게 인생을 마무리했는지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은 바울의 순교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절정의 순간 바울은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은 과거의 책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열려있는 책입니다. 미래의 성도들을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과 나눈다면 그것은 곧 사도행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 섭리의 위대함, 완전하심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나누었다는 것은 바울의 승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방해를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널리 퍼져 나갔으며 이로써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도 많이 늘었고 더욱이 수많은 제사장들도 이 믿음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행 1:7).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널리 퍼져서 믿는 사람이 더욱 늘어나게 되었습니다”(행 12:24).

“그리하여 주의 말씀이 그 지방 전체에 두루 퍼졌습니다”(행 13:49).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세력도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장애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승리하십니다. 사역자의 입은 막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 없습니다. 사역자를 가두어도 말씀은 계속 전파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그 어떤 시도도 모두 실패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승리하는 편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니까 말씀 편에 서는 것이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말씀의 승리로 끝납니

다.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풍랑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 산헤드린 지도자들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로마제국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둘째, 하나님 섭리의 위대함입니다. 바울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은 그의 위대함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섭리의 위대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끝을 알고 앞으로 진행될 일을 아는 사람이 담대합니다. 믿음의 안목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을 열어주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인생의 지도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롬 8:28).

바울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았기에 담대했습니다. 자신은 갇힌 자가 되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섭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세상이 끝난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때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일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가져온 사실을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사슬에 매인 것이 온 친위대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돼 많은 형제들이 내가 매임으로 인해서 주를 신뢰함으로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기와 다름으로, 또 어떤 이들은 좋은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빌 1:12~15).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 바라보고 있었기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갇힌 자가 되었기에 우리가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로마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사역했다면 신약의 3분의 2 분량을 차지하는 바울서신들이 기록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셋째, 하나님 능력의 완전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시기에 로마제국을 뒤흔들어 앞었습니다. 정치적인 능력으로 엮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의지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가둬놓음으로써 역사하셨습

니다.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을 미완성 상태로 만들어 놓음으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이 갇혀있는데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 올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의 완전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 불완전하고 미완성의 사람입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은 자신이 미완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완성되고, 완벽하고,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미완성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의지하는 것이 사도행전적 영성입니다. 예수님은 미완성을 너무나 잘 이해하셨습니다. 사람의 능력보다 그들의 반응과 변화된 모습을 보셨습니다. 제자들을 뽑으실 때도 탁월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뽑지 않으셨습니다. 부족해 보이고, 미완성인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미완성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맡겨 놓고 떠나셨습니다. 남겨진 제자들은 미완성이지만 성령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위대한 사도들의 역사가 아닙니다. 미완성의 사람들이 전능하신 성령을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미완성이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미완성의 인생입니다. 완전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도 완전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완벽한 작품이 되려고 하지 말고 미완성의 미학을 이루는 인생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 우리의 미완성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소망하십시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대반전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람은 막을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나타났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미완성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한 모든 위기가 놀라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인천 온누리교회 유라시아 A국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미 자매
(인천 온누리교회)

4월 어느날, 휴대 폰이 울렸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들고 함께 가자”는 문자메시지였다. “아멘”이라고 대답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

내 믿음의 씨앗이 유라시아 A국 아웃리치에서 싹이 났다. 이번 아웃리치에서 하나님은 더 큰 믿음의 산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나를 어린이사역 팀장으로 세우셨다. 나이드 가장 어리고 경험도 없는 내게 팀장 자리는 과분했다. 직책이 주는 중압감을 가지고 있는 내게 하나님은 “승미야 가만히 있어. 내가 할 거야”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저 주님이 일하시도록 내어 드릴 뿐이었다.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다음날 있을 어린이사역 준비를 했다. 데코가 막막했다. 준비해 간 방법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모두의 지혜를 모아 데코를 완성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 되기를 원하셨던 것 같다. 준비하면서 두렵고 설레기도 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준비한 어린이캠프를 주님이 어떻게 운행하실지 기대되었다.

캠프가 시작되기도 전에 아이들이 오기 시작했다. 새로운 친구들까지 많은 영혼들이 왔다. 유치부부터 중고등부, 유라시아 A국 교사들까지 모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들

과 우리는 모습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지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만큼은 같았다.

둘째 날 사역은 가장 많은 부분을 기도하고 준비했던 ‘천로역정’이었다. 5개의 방을 이용해 아이들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준비했다. 언어의 장벽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오직 성령님의 움직임을 기대했다. 천로역정 첫 번째 십자가의 방에서 아이들은 무거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였다. 두 번째 회개의 방에서는 자기가 지은 죄를 풍선에 붙이고 예수님과 함께 터트렸다. 아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죄를 터트리면서 울기도 하였다. 세 번째 방에서는 십자가 목걸이를 만들었다. 십자가 목걸이를 가지고 네 번째 세상유혹의 방에 가서 어떠한 유혹도 십자가와 바꾸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어린 영혼들이 대견했다. 다섯 번째 방에서는 세족식을 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차세대들의 발을 씻겨 주었다. 엄숙한 분위기에 진행된 프로그램에 유라시아 A국 친구들이 잘 따라주었다. 저녁집회에서는 하나님이 마음 깊은 곳을 어루만져 주셨다. 영원한 주님을 찬양하게 하셨다.

이번 아웃리치는 내가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이었다. 나를 어린이사역 팀장으로 부르신 이유도 깨달았다. 그날 밤 팀원들은 주일 일정을 준비하면서 데코를 다시 하였다. 준비해 갔던 데코는 이곳 교회와 아주 잘 어울렸다. 너무나도 멋진 데코가 완성되었다. 주일예배에서는 복팀이 특수를 했다. 복팀의 울림이 마치 주님의 심장소리 같았다. 우리



천로역정의 한 코너를 체험하고 있는 현지 어린이들.

모두는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였다.

같은 날 오후에 이어진 프로그램도 기쁨의 자리였다. 현지 아이들의 찬양과 연극 발표시간이 이어졌다. 시상과 선물을 풍성하게 나누는 자리였다. 일정이 모두 끝나고 기쁘게 돌아가는 영혼들을 선생님들이 꼭 안아주었다. 함께 섬겼던 유라시아 A국 선생님들과도 부동켜안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했다. 젊은 다음세대들 섬길 수 있어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마음껏 그들을 안고 축복했다. 저녁 초청잔치는 천국잔치였다. 주님의 빛이 그곳에 임재했다.

주님은 인천 온누리교회 아웃리치팀을 이곳에 보내셔서 백성들을 위로하셨다. 아웃리치

팀원들 한 명 한 명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셨다. 아웃리치에 동행한 어린이 팀원들에게는 믿음의 씨앗이 뿌려졌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경험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계신다. 믿음 없고 연약한 내가 어린이사역을 끝까지 책임지고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 하셨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기 때문이다. 모두 주님이 하셨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이번 아웃리치에서 경험한 이 마음을 잃지 않고 주님께 달려가고 싶다. 다음세대에게도 이 마음을 꼭 보여주고 싶다.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 대학부 동아시아 B국

나를 버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이안세 형제
(남양주 온누리교회 대학부)

얼마 전 동아시아 B국으로 아웃리치를 다녀왔다. 지난해 남아시아 I국에 이어 나의 두 번째 아웃리치였다. 한 번 경험해봐서 일까. 지난해와 올해 아웃리치에 임

하는 마음가짐이 사뭇 달랐다. 지난해에는 주님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호기심으로 다녀왔다면 올해 아웃리치는 지난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주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실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임했다. 주님은 내가 기대하고 기도한 것 그 이상을 보여주셨다.

우리 팀은 동아시아 B국의 소수민족인 H족을 섬기고 돌아왔다. H족은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신앙생활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었다.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주님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다.

우리 팀은 한 가정교회에서 주일예배를 함께 드렸다.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 예배가 어떤 내용인지는 제대로 알 수 없었지만 그곳 성도들의 예배드리는 모습에서 주님을 향한 간절함, 사랑, 행복, 평안함 등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다. 지금껏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모습들이었다. 그들이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회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다. 지금도 그들의 얼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아마 그 모습은 평생 잊지 못할 것 같다.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섬기고 있는 H족이 사는 작은 시골마을에 머물기도 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목도할 수 있었다. H족은 무슬림들이다. 공공로게도 우리가 마을을 방문한 시기는 라마단 금식기간이었다. 선교사님과 아웃리치팀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이 금식을 하는 중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종교를 믿는 우리들에게 최선을 다해 음식을 대접해주셨다. 외부인인 우리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는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그곳에 뿌린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사랑의 열매가 맺힌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싶은 소망이 있다. 그런 나에게 H족이 살고 있는 작은 시골마을에서의 경험은 흐릿한 그림 같았던 소망을 뚜렷한 그림으로 바뀌어 놓는 계기가 되었다. 이밖에도 아웃리치 기간 동안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었다. 나는 “주님,



동아시아 B국에서 H족을 섬긴 청년들.

왜 제게 이런 것들을 보여주십니까?”라고 기도했다. 그때 나의 마음에 순종이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다. 주님이 주신 값진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경외하게 되었다. 전보다 더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변했다. 그러려면 나를 버리고 주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비록 짧았지만 이번 아웃리치를 통해 동아시아 B국과 그 땅에 사는 소수민족 H족을 위해 기도했던 시간들이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라고 믿는다. 주님은 분명히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벌써 주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음을 느낀다.

내년에도 아웃리치를 갈 것이다. 주님께 대한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말이다. 그 땅에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한다.

아웃리치의 신학적 배경

1. 복음과 선교 그리고 나눔
2. 복음 들고 땅 끝까지

복음과 선교 그리고 나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올해도 여름 아웃리치 열기가 무척 뜨겁다. 성인공동체, 대학청년부, 차세대가 복음 들고 산 넘고, 바다를 건너고 있다. 국내 농어촌 미자립교회에서부터 멀리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발길이 안 닿는 곳이 없다. 황재명 목사가 아웃리치 시즌 성도들이 반드시 알고, 기억해야 할 복음과 선교에 대한 글을 보내왔다.

/ 편집자 주



황재명 목사
(강서공동체)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시작한지 1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고린도에서 다음 선교지를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었다. 이때 바울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써서 인편으로 전달했다. 그 편지에는 온 세상에 믿음이 알려질 만큼 신앙생활에 본을 보이고 있는 로마교회를 칭찬하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롬 1:8), 연이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소망한다고 기록하고 있다(롬 1:15).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소망한다는 바울의 논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로마교회 성도들은 복음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작정 큰소리로 “믿습시다”하는 입술의 믿음으로 온 세상에 헛소문이 났던 것일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한 발걸음을 정당화하려는 선교적 선편였던 것일까?

“다시 복음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기 전 수많은 지역을 방문해 교회들을 개척하였고, 성도들을 목양하며 복음을 가르쳐왔다. 당시 로마제국 통치하에 이방 우상들을 섬기고 있던 갈라디아, 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신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온 세상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특히 이방인 성도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워나갔다.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 앞에 회심으로 응답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고 기쁨과 감격에 넘쳐 덩실덩실 춤을 추었음지도 모른다. 교회에 회심한 사람들의 믿음으로 세워지고, 말씀

으로 양육되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자 바울은 또 다른 선교지를 향한 부름에 순종함으로 나아갔을 것이다.

문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떠난 다음에 일어났다. 시간이 흘러 바울의 귀에 들려온 소식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다른 복음’을 듣고 있다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였다(갈 1:6). 함께 있을 때 그렇게 설명하고 또 설명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지만,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의 변질된 종교적 논리에 한순간에 휩쓸려버린 갈라디아 성도들의 소식에 바울은 적잖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을 것이다. 어쩌면 거룩한 분노가 바울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왔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바울은 우선 편을 들어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단호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내려갔던 것이다. 그 편지를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며, 복음의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했다(갈 1:11~17). 더 나아가 복음의 절대성은 절대

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좋은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 받아들이는 복음에 기쁨으로 화답하는 삶, 그 삶이 신앙의 본질이며 그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임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마 28:19).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외쳐야 한다.

“다시 복음으로!”

로마교회를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최종 목적이었던 것일까?

안디옥교회에서 파송 받은 후 갈라디아, 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등을 순회하며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을 방문해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한 바울은 3차 전도여행 말미에 겨울을 나기 위해 고린도에서 약 3개월 정도 머무르게 되었다(행 20:3).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달마티아 지역)까지 그동안 자신이 걸어온 선교의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한 바울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들이 많이 남아있음을 인지하고 그곳을 향한 선교적 열정과 동

의해서 바울은 예루살렘 동쪽(지금의 중동과 아시아)이 아닌 서쪽(지금의 유럽)으로 복음을 들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였던 것이다. 바울의 선교적 움직임과 동일한 지리적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당시 로마 제국의 영토이다.

1세기 로마 제국의 점령지역을 보면 동쪽 끝으로는 이스라엘, 서쪽 끝으로는 스페인까지 포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약 20여 년 동안 로마 제국의 구석구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찾아간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의 꿈을 꾸었던 것이다. 바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적 명령이었다(행 1:8). 바울을 향한 이 소명, 이방인을 향해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나아가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은 이미 바울보다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보여 주셨던 선교적 비전과 동일하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위 ‘여호와와 종’(사 42:1, 49:1-6, 50:4-9, 52:13-53:12)에게 부여되었던 사명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아픔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사 49:6)는 이 사명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이 사명에 따라 사도 바울은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 제국의 동쪽 끝(예루살렘)에서 서쪽 끝(서바나)까지 복음화를 위해 그 어떤 고난과 희생도 감수하였던 것이다.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많은 선교사들이 동일한 선교적 비전을 품고 각자의 땅 끝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아가고 있다. 그럼 이 비전은 단지 선교사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인가? 아니면 선교사로 부름 받지 않은 대부분의 성도들의 땅 끝은 어디인가? 믿지 않은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웃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리는 것, 소외되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구제와 나눔으로 섬기는 것 등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보여지는 선교적 땅 끝은 아닐까.

이러한 소명과 사역이 온전히 수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헌신적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의 삶이 먼저 복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동일한 원리가 우리 모두에게 적용된다. 각자의 인생 속에 소명 받은 그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 삶이 먼저 복음화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다. 만인에 공개된 나의 앞모습뿐만 아니라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혹은 감추고 싶은 뒷모습까지도 온전히 복음화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우선적이고 일차적인 땅 끝이 아닌가 반문해 본다.

땅 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삶이 먼저 복음화가 되어야 한다.

그 어떤 것으로도 훼손될 수 없으며 훼손되지도 않는다는 진리를 강조하였고, 결단코 다른 복음은 없다고 역설하였다(갈 1:7-10).

사도 바울은 이런 경험을 통해 ‘복음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 깨달음은 새로운 교회들을 계속 개척해나가고 목양해감 속에서 입증되었을 것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자신이 경험하고 깨달았던 진리를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기독교계를 이끄셨던 한경직 목사님은 당신이 살아계실 때 다른 목사님들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셨다고 한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성도뿐만 아니라 목사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예수님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라는 권면과 도전의 인사말이다. 바로 이 인사말을 사도 바울이 믿음 좋기로 소문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전했던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너무나 많이 듣고 익숙해져서 그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기와 도전을 줄 수 있음을 사도 바울과 한경직 목사님은 한목소리로 권면하였던 것이다. 하나님의

시에 안타까움을 토로하였다(롬 15:19-21). 사도 바울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열망했습니다. 이는 남의 터 위에 집을 짓지 않으려는 뜻에서였습니다.”

남의 터 위에 교회 세우기를 지양한 사도 바울은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들을 찾아 선교의 아름다운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특별히 ‘주의 소식(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보게 되며, 듣지 못한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비전을 선포한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사 52:15, 롬 15:21)을 따라 당시 로마 제국의 서쪽 끝에 위치한 서바나(지금의 스페인)에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소망을 품었다. 특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비전에 함께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였다(롬 15:23-24).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서바나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자하는 선교적 책임감이 바울의 마음 깊은 곳을 누르고 있었던 것이다(롬 15:20-22).

그럼 왜 서바나인가? 사도 바울의 3차에 걸친 선교 여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선교의 방향성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령의 이끌림(행 13:2, 16:6, 27:23)에

올 여름 꼭 다녀와야 할 기독교 유적지

1. 강화도 교회와 한국선교역사기념관
2. 지리산 왕시루봉 선교사쉼터

강화도에 들어온 복음이 조선 팔도로!

한국 기독교가 눈부시게 성장하게 된 통로

인천 강화도는 한반도 기독교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다.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거룩한 곳이다. 예수 믿는다고 엄청난 박해와 고난을 당한 아픔이 서린 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화도에 들어온 복음이 지정학적 특성을 살려 평양으로, 한양으로, 조선 팔도로 뻗어 나갔다.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사방으로 날리듯이 강화도에 전파된 복음이 한국 기독교가 눈부시게 성장하게 된 통로를 만들었다. 그 아름답고 의미 있는 땅에 현존하는 기독교 유적지를 소개한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강화도는 예로부터 유난히 종교의식이 강한 곳이다. 단군신앙부터 불교, 유교, 천주교, 성공회, 개신교까지 수많은 종교들의 뿌리가 깊다. 현존하는 고인돌, 천 년된 정수사, 천주교 순교지 갑곶순교성지, 백년 된 교산교회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주요이동수단이 배였던 시절 강화도를 통해 많은 문물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던 지역이었다. 이 때문에 외세의 침략을 가장 먼저 당한 아픔의 땅이기도 하다. 당시 강화도는 수도(한양)와 내륙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 인천 제물포항으로 들어온 선교사가 지정학적 특성을 살리기 위하여 강화지역 전도에 열을 올렸다. 그렇게 강화지역에 전해진 복음이 전국으로 뻗어나갔다. 신미박해, 신유박해, 병인박해 등 수많은 장애가 있었지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지 못했다. 현재 강화도에는 교회가 179개나 있고, 인구의 25% 이상이 기독교인이다.

지정학적 특성 살린 강화지역 선교

강화도 지역의 기독교는 감리교에 의해 시작되었다. 179개 교회 중에 120개가 감리교회다. 강화지역 기독교인 중에 감리교 소속이 77.6%나 된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에 언더우드와 함께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한 아펜젤러는 한국 감리교회 선교를 개척한 미감리회 소속 선교사였다. 1893년 존스 선교사가 인천 책임자로 와서 독립계삭회가 구성되면서 선교확장의 열망이 강화지역으로 이어졌다. 당시 강화지역에 대한 감리교의 선교는 제물포교회(현 내리교회)를 중심으로 시작됐다. 존스 목사와 인천의 노병일, 김기범, 이명숙, 백헬렌 등 한국인 전도자들이 강화선교에 열성을 쏟았다. 강화도는 우리나라 수도로 가는 관문이며, 북쪽으로는 황해도 해주 방면, 남쪽으로는 덕적도를 경유해 충청도 당진까지 이어지는 해상교통의 요충지였기 때문이었다. 강화의 복음화는 황해도 전도를 위한 전진기지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했다.

당시 한국 선교를 관리하고 있던 스كر랜턴은 1892년 12월 21일에 본국으로 보낸 편지에

서 존스가 이미 1892년 말에 강화전도여행을 시도한 것과 더불어 강화지역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제물포와) 이웃해 있는 섬인 강화에는 7만 명 주민이 있는데 우리에게 들어오라고 총동하고 있습니다. 강화를 얻게만 된다면 우리에게 값진 보화가 될 것입니다. 사실 발판은 이미 얻어 놓았습니다.”

강화의 최초의 교회는 1893년 세워진 교향교회(현 강화교산교회)다. 양사면 시루미 마을 출신으로 제물포에서 주막을 운영하던 이승환이 존스 목사를 만나면서 복음이 들어오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존스는 이승환의 모친에게 선상에서 세례를 주고 인천에서 활동하던 전도인 이명숙과 전도부인 백헬렌을 시루미로 파송해 이승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게 시작했다. 그렇게 강화지역의 첫 신앙공동체가 탄생했다. 4~5명으로 시작한 예배는 불과 1년 만에 80명으로 부흥했다. 천민출신이 많은 시루미 마을에서 좀 떨어진 다리목에 살던 양반 김상임이 존스 목사로부터 세례를 받으면서 마을 전체가 개종했다. 김상임이 1894년 자기 집 앞마당에 예배당을 마련하자 시루미 마을 교인들이 옮겨왔고 다리목(교향, 橋項)과 시루미(중산, 甌山)의 한자를 따서 교산교회라 이름 지었다.

홍의교회는 교산교회 설립 3년 후인 1896년에 설립되었다. 이 마을 서당훈장이던 박능일이 교산교회의 김상임을 만나고 돌아와 자기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되었다. 서당학생 20여 명, 종순일, 권신일과 함께 자기 집에서 홍의교회를 설립했다. 강화의 두 번째 교회가 탄생했다. 1900년에는 홍의교회에 출석하던 주선일, 박성일, 허진일, 김봉일 등 몇몇 교인이 강화읍 천교하(현 강화읍 신문리)에 초가집을 마련하고 첫 예배를 드림으로써 오늘날 강화중앙교회의 모체(잠두교회)가 되었다. 강화지역 복음 전파 8년 만인 1900년에 수도 강화읍에 드디어 교회가 세워졌다. 1892년 존스 목사가 입성하려다 실패했던 강화읍에 토착교인에 의하여 십자가가 세워졌고, 강화도 전 지역 복음화의 터전을 굳건히 다졌다. 강화 복음화의 중심역할을 했으며 한국교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대표적인 강화도 기독교 유적지



강화교산교회(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서사길 296).



홍의교회(인천광역시 강화군 송해면 홍의길 124).



강화중앙교회(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청하동길 36).



인천 한국선교역사기념관(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제로 393).

1893년 세워진 강화교산교회는 강화 최초로 세워진 강화의 어머니교회다. 미 감리회 존스 선교사가 강화 서사(지금의 교산리) 앞 바다 배 위에서 이승환의 어머니에게 세례를 준 것이 강화에 복음의 겨자씨였다. 그때 어머니와 함께 세례를 받은 이승환의 집에서 4~5명이 예배를 드렸고 교인은 50여 명으로 급속히 늘어났다.

교회 주차장 앞에는 선상세례를 재현한 동상과 모형 배가 있다.

홍의교회는 박능일이 1896년 선교사의 도움 없이 예배당을 건축했다. 1년 만에 성도가 80명을 넘어 교회 부흥의 열정과 가능성을 보여줬다. 특히 홍의교회 교인들은 그들만의 끈끈한 신앙공동체 의식을 표현했는데 그것은 검은 옷 입기와 개명 운동이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의미로 교인들은 흰옷에 검은 물을 들어

옷을 입고 다녔다. ‘믿음 안에서 하나’라는 뜻으로 교인들은 이름의 돌림자를 한 일(一)자로 개명하기도 했다.

강화중앙교회는 주선일, 박성일 등이 강화읍 천교하의 여섯 칸 반짜리 초가집에서 첫 예배를 드림으로 설립되었다. 이후 존스 선교사의 협조로 기와집 25칸, 초가집 16칸을 구입하여 현 위치로 옮겨 강화에서 가장 규모가 큰 예배당을 마련하게 됐다. 누에머리를 닮은 잠두 언덕배기에 위치해 설립 초기에는 잠두교회라고도 불렸다. 교회

본당 입구에 위치한 교회 역사관에서는 초가집 지은 초기 예배당의 모습과 100년 이상을 지내온 교회의 역사 유산을 엿볼 수 있다.

2008년 12월에 개관한 한국선교역사기념관은 기독교 문화와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 1층에서는 천지창조로부터 시작하여 실제 역사 속에 실현된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한다. 2층에는 한국 기독교 유래를 조망하고 일제강점기의 기독교 민족운동을 살펴볼 수 있다. 특히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을 심도있게 다룬다. 3층은 6.25 한국전쟁 당시 공산당의 기독교 박해 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기독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에서 온사랑합창단이 합창하고 있다.

온사랑합창단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 우수상

한 마음 한 뜻으로 연습하고 기도한 쾌거

온사랑합창단이 지난 4일 열린 제 4회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지적발달 장애인복지협회가 주최한 이번 합창대회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온사랑합창단, 신아하모니(서울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송과구지부), 인천발달장애인 다함께합창단(인천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등 12개 팀이 출전했다.

온사랑합창단은 이번 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 꾸준히 연습해왔다. 지난 한 달 동안은 주 3회씩 모여 연습하고 기도했다.

온사랑합창단 황화자 단장은 “이번 대회를 위해 부모와 단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연습하고 기도하며 달려왔다”고 밝혔다.

한편 온사랑합창단은 오는 14일 (목) 삼성서울병원에서 연주회를 개

최하고, 8월 22일(월)에는 CTS아트홀에서 열리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국제교류음악회’에 참가할 예정이다.

온사랑합창단은 2011년에 창단된 발달장애인 합창단이다. 학교, 병원, 교회 등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12명의 음악가들과 40여명의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2016 간사수련회 ‘일과 영성’

“더 열심히 섬기는 공동체 될 것”

간사수련회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2박3일 동안 인천시 강화도에 위치한 그레이스 힐 연수원에서 진행됐다. ‘일과 영성’을 주제로 열린 간사수련회에는 국내 10개 캠퍼스, 온누리M미션, Acts29 비전빌리지 등 간사 120명이 참석했다.

간사수련회 첫째 날에는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가 ‘회복과 영성’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목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아뢰는 간사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둘째 날 오전에는 최영수 목사(직장사역훈련센터)가 ‘일과 영성’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최목사는 “나의 일이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저녁에는 김용의 선교사(열방기도센터 대표)가 집회를 인도했다. 김 선교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주님 나라가 임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했다. 셋째 날에는 박연희 대표(공감소통연구소)가 서비스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수련회 둘째 날에는 당회 운영위원회 장로 6명이 참석해 간사들을 축복했다. 당회서기 정파종 장로는 “간사들이 묵묵히 교회의 허리 역할을 감당해줘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 김영선 기자

온누리상담센터 레지던트 모집

서빙고 온누리상담센터에서 레지던트 훈련생을 모집한다. 상담관련 석사 취득, 면접상담 100시간 이상 경험이 있는 온누리교회 등록교인이 대상이다. 교육기간은 1년, 교육비는 학기당 30만 원이다. 일주일에 이틀(1일 상담, 1일 교육) 근무한다. 구비서류는 지원서(양식제공), 최

종학위증명서, 목회자 추천서, 임상경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소지자에 한함)이다. 17일부터 8월 12일 오후 5시까지 서류를 접수한다. 서류전형과 면접 이후 합격자를 개별통보한다.

문의: 02-793-2998

lsy1227ysl@hotmail.com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 되겠습니다”

수원 온누리교회 창립 13주년 감사예배

수원 온누리교회가 지난 주일(3일) 창립 13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오전 9시 수원 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드린 교회창립 13주년 감사예배에는 유재건 장로(CGNTV 대표이사), 정상건 장로(CGNTV 운영위원장), 김정훈 장로(CGNTV 운영위원), 신학철 장로(강남A공동체)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유재건 장로는 ‘수원온누리’로 5행시를 준비해 수원 온누리교

회 성도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정상건 장로와 김정훈 장로는 하모니카와 클라리넷으로 특수를 했고, 신학철 장로는 “수원 온누리교회가 낮은 곳 더 낮은 곳에서 예수님 바로 보여주는 캠퍼스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신기섭 목사(수원 온누리교회 담당)는 이날 설교에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수원 온누리교회가 되겠다”고 선포했다.

수원 온누리교회는 13년 전 한 성도가 순장교육을 할 수 있도록 빈 공간을 제공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그 자리를 방문한 하용조 목사가 수원 캠퍼스 설립을 선포했다. 2003년 6월 29일 성도 100여 명이 모여 창립예배를 드렸다. 13년이 지난 지금 수원 온누리교회는 성도 3,000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다. 차세대가 1,200명이다. 한편 이날 수원 온누리교회 1층 로비에서는 CGNTV 홍보행사가 개최되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강남C공동체 특강 ‘스가랴서 연구’

강남C공동체가 여름방학 특강 ‘스가랴서 연구’를 7월 14일과 15일 양재 화평홀에서 실시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회비는 1만원. 스가랴서에 대해 깊이 있게 나누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기진 목사는 성도들에게 “이번 특강은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성경적 기초와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깨닫는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72기 샤이닝글로리 참가자 모집

72기 샤이닝글로리 참가자를 선착순 모집하고 있다. 17일부터 20일까지 3박4일 동안 파주제자수양관에서 진행된다. 회비는 38만 원이다. 신웅식 집사(가정사역공동체)는

“샤이닝글로리는 위로와 회복의 장소이자 메마른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곳”이라며 꼭 한번 참석해보기를 추천했다. 문의: 02-3215-3726

/ 김미림 기자

대학청년부 FA 11기 헌신자 모집

대학청년부 청년단기선교 프로그램 FA(Frontier Agency movement) 11기 헌신자를 7월 19일까지 모집한다. 자격은 영육이 건강하고, 구원에 확신이 있는 자로서 선교에 관심이 있는 온누리교회 등록교인(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나이는 35세 이하(82년생)로 제한한다. 구비서류는 허입신청서, 목회자추천서, 공동체 리더 추천서, 지인 추천서,

가족관계증명서, 졸업(재학)증명서를 각 1부씩 제출해야 한다. 선발과정은 7월 23일 면접이 실시되고, 30일에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된다. FA 11기 헌신자로 선발되면 8월12일부터 9월 2일까지 Acts29 비전빌리지에서 합숙훈련을 받는다. 선교현장에는 9월 22일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머물게 된다. 파송국가는 네팔, 인도네시아, 중국 등이다.

FA 11기에는 재정 및 기도 후원으로도 헌신할 수 있다. FA 중보기도회가 매일 마지막 주 월요일 오후 7시2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홀에서 진행되고 있다.

문의: 070-4464-8105,

favision2000@gmail.com

후원: 하나은행 573-910009-62805 (예금주 FA간사)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양재 만남의 잔치 명단

일시: 7월 17일 오후 3시 30분 장소: 드림홀
대상: 6월 6일부터~7월 3일까지 등록한 성도

강남A 이민정 이현정 전재균	노지연 문태연 이경희 이승희 이지인 전홍정 지영주	김영숙 김필순 김현아 성경희 윤지원 이재연 최하영	조민호 분당A 합진구 분당B 김병성 송지영 정성희	장재권 최정원 서초A 김민욱 김준희 서초C 김민섭	서초D 김은혜 김태훈 이가영 이명주 임준형 전홍철 조진희	최경우 송파 강미화 박한숙 엄한용 임영옥 양재	김수정 김영광 김익성 전순애 제갈균 조혜연 한혜정 황종환
--------------------------	---	---	---	---	--	---	--

8 온누리신문

Onnuri
온누리교회

http://onnuri.or.kr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피로 31길 70
햇불선교센터
- 부천
박형준 목사 (032) 322-9686
14503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95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박태영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국토정보빌딩
3-6층
- 남양주
안광국 목사 (031) 565-9686-8 (대표)
471-856 구리시 이문안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김종민 목사 (031) 651-9680(대표)
17906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26 2-3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98 인천광역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13
- 강릉
최원준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현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주계로62번길 20

■기도처

- 태안온누리
송영동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송영동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장영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봉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해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해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얼바인
권혁빈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김경연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 미동부
- 보스턴
이훈 목사
1-781-933-7044
73 pine st, Woburn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 이중재 목사 1-630-753-9191
1433 N 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940-1900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Marc Choi 목사 1-212-427-2055
316 East 91st St, New York, NY 10128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6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a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이한규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오세아니아

- 시드니
김철진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lia
- 오클랜드
유현목 목사 64-21-0810-3132
7 Tamdale Grove, Albany, Auckland,
New Zealand

■일본

- 도쿄
문봉주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Naniwa 3F 1-3-19 Higashisinsaibasi Chuoku
Osakasi Japan 542-0083
- 우에다
하카마타 미키 목사 81-26-821-4566
Nagano-ken Ueda-shi Oaza Suwagata 1377-
64 JAPAN
- 요코하마
서현 목사 81-45-641-6468
(231-0012) Yaomasa Bldg 4F, 3-63 Aio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아치오
니시아마 신이치 목사 81-47-482-1299
(276-0045) 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김철희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
AGAWA-KU SHIMAI-CHO61 EHWDA DAIA-
MOND 2F
- 교토
아미나카 토모요시 목사 81-75-748-9808
Saiin Pram Bld 6F, Sanjocho 14, Saiin
Woolyoku, Kyoto Japan

■중동

- 바르다비
김태만 목사 971-2-665-7754
opposit embassy of Viet Nam, 23rd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김영택 목사 84-8-5412-2773
35L 20-1 Grandveiw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 북경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둥
김대진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53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 526路
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shan zhongdianzhan)
- 상해
박만규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anghai Minhangqu Caobao Lu 1243hao
yongweishangwudasha 3lou 388shi
- 장춘
박시형 목사 86-158-0431-5714
中国 吉林省 长春市 南关区 永长路 213号 onnuri.
zhongguo jilinsheng changchunshi nanguanqu
yongchanglu 213hao onnuri.
- 청도
최승구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박종길 이상준 박형준 신기섭
박태영 안광국 김종민 서경남
최원준 도육환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승운 강일하
권오환 권용강 강경훈 강관수
김도균 김도균 김상수 김승완
김성원 김승수 김승수 김승완
김성훈 김명배 김영진 김경장
김성진 김성진 김종아 김찬호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부목사(현임)

김미향 강승운 강일하
권오환 권용강 강경훈 강관수
김도균 김도균 김상수 김승완
김성원 김승수 김승수 김승완
김성훈 김명배 김영진 김경장
김성진 김성진 김종아 김찬호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승운 강일하
권오환 권용강 강경훈 강관수
김도균 김도균 김상수 김승완
김성원 김승수 김승수 김승완
김성훈 김명배 김영진 김경장
김성진 김성진 김종아 김찬호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부목사(현임)

김미향 강승운 강일하
권오환 권용강 강경훈 강관수
김도균 김도균 김상수 김승완
김성원 김승수 김승수 김승완
김성훈 김명배 김영진 김경장
김성진 김성진 김종아 김찬호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승운 강일하
권오환 권용강 강경훈 강관수
김도균 김도균 김상수 김승완
김성원 김승수 김승수 김승완
김성훈 김명배 김영진 김경장
김성진 김성진 김종아 김찬호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부목사(현임)

김미향 강승운 강일하
권오환 권용강 강경훈 강관수
김도균 김도균 김상수 김승완
김성원 김승수 김승수 김승완
김성훈 김명배 김영진 김경장
김성진 김성진 김종아 김찬호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승운 강일하
권오환 권용강 강경훈 강관수
김도균 김도균 김상수 김승완
김성원 김승수 김승수 김승완
김성훈 김명배 김영진 김경장
김성진 김성진 김종아 김찬호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부목사(현임)

김미향 강승운 강일하
권오환 권용강 강경훈 강관수
김도균 김도균 김상수 김승완
김성원 김승수 김승수 김승완
김성훈 김명배 김영진 김경장
김성진 김성진 김종아 김찬호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소천

- 7/4(월) 성동광진 최성민 형제 부친상 고 최재하
- 7/5(화) 광명 흥기만 성도 모친상 고 황대방
- 7/6(수) 브릿지33플러스 신신희 성도 부친상 고 신용구 성도
- 7/7(목) 양재 정호영 성도 부친상 고 정재수 성도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문창극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미림, 김영선, 이소정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3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성자를 사용합니디

온누리
복지재단

군포시청소년년설터하나로 학습 자원봉사자 및
후원물 모집
검정고시(수학,과학,윤리,국사) 및 악기(통기타) 후원
모집
문의: 임재금 팀장(031-399-7997)

온누리요양센터 입소자 및 요양보호사 모집
문의: 이수현 과장(070-4489-6889)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기계목욕 및 안내
시간: 기계목욕(화요일 10:00-12:00), 안내(시간협의)
문의: 이지희 사회복지사(3407-2747)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옷자, 옷대, '옷자단' 모집
대상: 만 60세 이상 열정있는 시니어
기간: 6월 - 11월
장소: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행사 특성에 따라
자택가능)

내용: 1. 옷자캠페인(우울, 자살 예방 캠페인 진행)
2. 응답하라 폰팅(아르스 안부 전화 상담)
3. 앤딩다이어리(자사전 제작)
4. 내 마음의 거울(미술치료 통해 자기 이해, 정서안정)
문의: 이지희 사회복지사(794-6100)

청파노인복지센터 선풍기(대형, 가정용)후원요청
후원내용: 대형-센터 프로그램 용
가정용-재가복지 어르신 여름나기
문의: 차해민 사회복지사(070-4340-2599)

제정

십일조 계좌: 하나은행 573-810034-10105
해외선교계좌: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지방 헌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모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8 (모든 상담 사전예약 필수)
(화-금: 오전10:00-오후5:00, 토-일: 오전10:30-오후3:00)
면접상담 시간: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 상담, 미술치료
전화상담 위키기(에만 제공)
심리검사 MMPI-2, MBTI, 종합심리검사, 에니어그램,
U&I 학습 진로탐색검사
특수상담: 세무상담: 첫째 주일 오전 10:30-12:00
정신과,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원자 상담: 주일 오후 3:00 이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상담: 수요일 오후

■ 양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지퍼수자등문안복)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모집

온누리 남성선교 합창단원
연습: 매주 화요일 19:30-21:30, 한동홀
접수: 7/3, 7/10 (주일) 오전 8시-오후 4시, 로비 안내데스크
문의: 김형준 총무(010-5437-1964)

온누리M센터 온누리지역아동센터 직원
모집: 시설장 1명, 사회복지사 2급 이상 0명
접수: 채용 시까지
접수: 이메일 접수 field1999@naver.com
서류: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자격증 사본 각 1부
문의: 070-4439-1700-1

한마음정신회복예배 섬김의사
자격: 온누리교회 중 정신과전문의
시간: 오전 11시 20분-오후 1시 30분
(서빙고 양재 예배 순회 센터 가능)
문의: 박성규 장로(010-3727-0010),
권용한 장로(010-7933-1958)

공사량 회원

대상: 온누리교회 혹은 주변 믿지
않는 남편, 아들, 지인
운동시간: 매주 토요일 아침 9시-13시경
문의: 오명석 총무(010-6470-7131)